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미국 내 대표적 자전거 친화도시로 발돋움	워싱턴 D.C.
문화·관광	3	‘일본어방송 6개 외국어로 번역’ 스마트폰 앱 실증실험	도쿄
사회·복지	5	산불 등 자연재해 수습에 앞장선 자원봉사자 격려	토스카나
	7	사회연대체 6만5천곳에 3년간 3,285억원 지원	파리
행재정·교육	9	모든 대학생에 등록금 면제...기숙사·식사도 무료제공	토스카나
	11	청년니트족 대상 취업연계 프로젝트 진행	버밍엄
도시교통	13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전자결제로 징수	베이징
정보·기타	15	도시정비사업지구에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 시범적용	뮌헨



## 미국 내 대표적 자전거 친화도시로 발돋움

### 자전거 공유프로그램 시행·차선 확장...이용률 10년간 3배 늘어

미국 워싱턴 D.C. / 도시교통

- 미국 워싱턴 D.C.는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자전거 공유프로그램과 자전거 전용차선 확장 등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자전거 이용률이 10년간 3배 늘어 미국 내 대표적 자전거 친화도시로 부상
- 개요
  - 워싱턴 D.C.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 2001년 자전거 이용 수요는 증가했지만, 자전거 정책은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련 정책 정비의 필요성 인식
    - 2008년 미국 내 최초로 '유료 자전거 공유프로그램'(Capital Bikeshare)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
      - 근처 지하철역에서 자전거를 빌려 출근하고, 퇴근 후 자전거를 반환하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
  - 미국 전체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전거 이용률 기록
    - 2016년의 자전거 이용률이 2006년에 견줘 3배 증가
      - 일평균 17,000여 명이 출퇴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도시 출퇴근 인원의 5%에 해당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교통국의 정책방향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형성
      - D.C. 교통국은 유럽의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 자전거 친화적 도시에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즐기는 문화를 경험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선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
      - 2010년 펜실베이니아거리의 중앙 자전거 전용차선과 15번가의 자전거도로 건설로 자전거 이용자가 도시 중심부와 내셔널 몰까지 안전하게 접근 가능

- 자전거 전용차선을 매년 5마일(8.05km)씩 늘릴 계획을 추진 중이고, 완료 시(2040년경) 대부분 길에 자전거도로가 들어설 전망
- 시민단체 '워싱턴 D.C. 자전거 협회'(WABA: Washington Area Bicyclist Association)의 활동
  - 도심지역 시민뿐 아니라 저소득층 지역과 교외 지역 시민의 참여 유도
  -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해 여성의 자전거 이용 장려
  - 2006년 여성 자전거 이용자의 비율은 30% 아래였지만, 현재는 42%로 증가
- 한계
  - 흑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자전거 활성화 필요성 제기
    - 워싱턴 D.C.에 약 67개의 자전거 가게가 있지만, 흑인이 주로 거주하는 7번 구역과 8번 구역에는 단 한 개의 가게도 없는 상태
    - 흑백 인종 사이에 남아있는 문화적, 경제적 차이와 관련
  - 정부와 협의해 해당지역에 자전거 수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



[그림 1] 워싱턴 D.C. 자전거 이용률 증가 요인

<https://www.citylab.com/transportation/2017/12/how-washington-dc-built-a-bike-boom/548903/>

<https://www.capitalbikeshare.com/how-it-works>

<https://vimeo.com/142332258>

<http://www.waba.org/>

강민규 통신원, mgkang82@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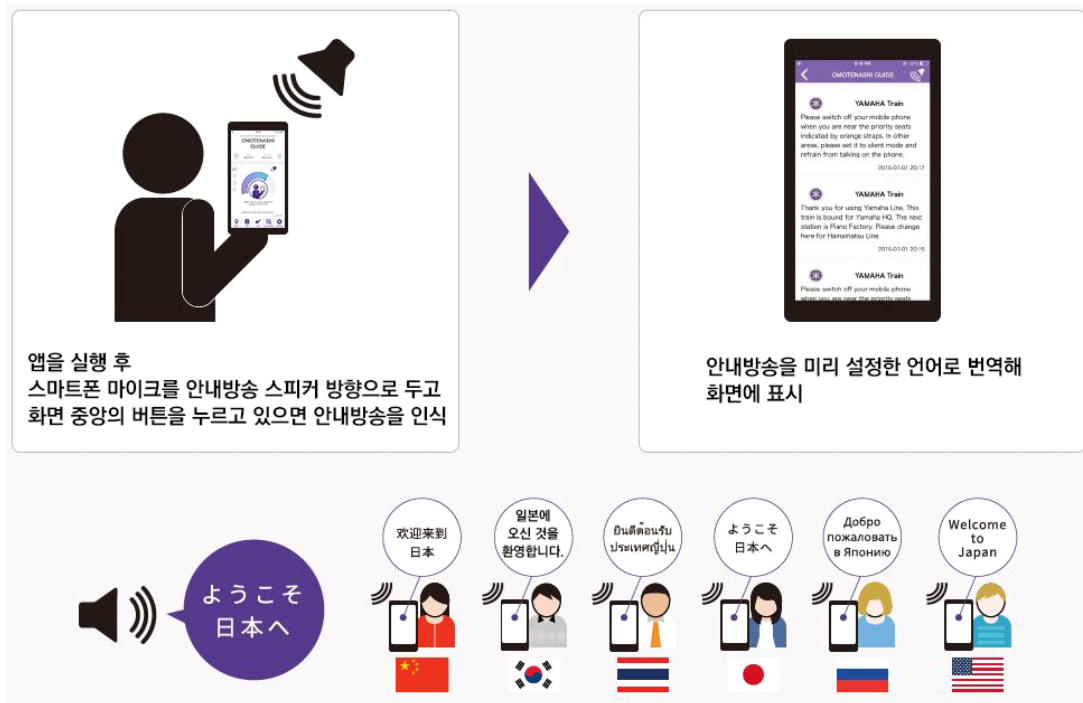
## 문화·관광

### ‘일본어방송 6개 외국어로 번역’ 스마트폰 앱 실증실험

일본 도쿄都 / 문화·관광

- 일본 도쿄都는 관광 활성화와 노인·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지와 공공기관의 일본어 안내방송을 6개 외국어로 번역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2017년 12월 18일부터 실증실험을 진행 중
- 배경
  - 도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언어 장벽 해소의 필요성
    - 일본의 대표적인 철도회사 ‘JR히가시니혼’(JR東日本)은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대비하여 방일 외국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
    - 주요 공공기관의 일본어방송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노인,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JR히가시니혼’과 오디오 부품 전문기업 ‘야마하’(ヤマハ)가 함께 개발
  - 2017년 12월 18일부터 나리타 공항역, 공항 제2빌딩역 내의 일본어방송을 6개 언어로 번역해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의 실증실험을 시작
    - 음성 인식의 정확성이나 시스템의 안정성 등 기술적인 과제 검증 중
  - 안내방송 무료 통역 앱 ‘환대 가이드’(おもてなしガイド)
    - 열차 도착과 출발을 안내하는 일본어방송을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수신하고, 이를 이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 문자로 표시
    -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와 번체), 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 가능
    - 외국인뿐 아니라 노인과 청각장애인도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
    -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단말기에서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관광객이 큰 제약없이 사용 가능

- 방송 전용 음파와 일상 대화 음파를 분별하는 기능이 있어 크고 작은 대화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안내방송만 선별해 수신할 수 있음



[그림 1] '환대 가이드' 앱의 이용 방법

<http://omotenashiguide.jp/#use>

<https://news.mynavi.jp/article/20171211-555236/>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215-00010000-chibatopi-l12>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 사회·복지

### 산불 등 자연재해 수습에 앞장선 자원봉사자 격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사회·복지

- 2017년 산불과 홍수 등 많은 자연재해를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극복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재난 수습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의 자원봉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를 피렌체의 역사적 장소인 베르디 극장(Teatro Verdi)에서 개최
- 배경
  - 2017년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극복
    - 토스카나 리보르노시의 홍수
      - 토스카나 청년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그룹을 지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 여름에 발생한 유럽 전역의 산불
      - 여름 3개월 동안 토스카나에서 총 660회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덕분에 70%의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음
    - 겨울에 발생한 눈사태
      - 작년 1~2월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내린 큰 눈을 시민 자원봉사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음
  - 모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의논할 자리를 마련
    - 개인적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느라 조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보완책과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지난해의 자원봉사 참여 현황을 되돌아보고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전함
    - 2017년 토스카나주 내 총 565개의 자원봉사 기관과 19,205명의 자원봉사자가 2,000가지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참여
    - 2018년 1월 13일 피렌체의 역사적 장소인 베르디 극장에서 개최

- 주정부는 지난 활동을 바탕으로 ‘자율성’(Autonomia)과 ‘팀워크’(Gioco di Squadra)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자원봉사 원칙으로 제안
  - 자율성은 자원봉사의 핵심
    - 자원봉사자는 누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주체적 판단으로 참여
    - 자원봉사 활동으로 타인의 웰빙과 사회안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자신도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함
  - 팀워크와 사회적 결속
    - 사회적 결속은 이탈리아 고유의 정신이며 특히 토스카나주 발전의 원동력
    -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행동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결속력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가치
- 순수한 열정으로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 시민의 의무를 다한 청년에게 감사를 표함
  -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해 참여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발성이 조직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계획과 행동 방향을 논의
- 일반 시민과 연결고리의 필요성
  - 일반 시민들이 더 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
    - 토스카나주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은 주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모든 시민의 노력과 봉사 덕분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할 필요
  -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돕는 기본적인 트레이닝 제공의 필요성 논의
- 사진 전시, 토스카나주의 대표적 자원봉사자의 다큐 상영, 토론 등을 진행



[그림 1] 베르디 극장에 모인 토스카나주 자원봉사자와 기관들

<http://www.toscana-notizie.it/-/protezione-civile-una-giornata-per-dire-grazie-e-la-proposta-di-una-legge-regionale-sul-volontariato>

김예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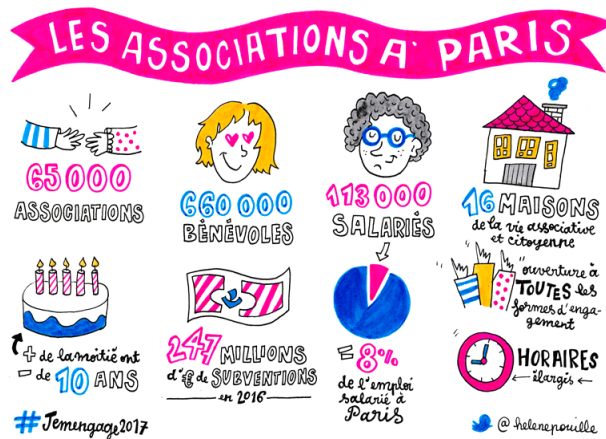
## 사회연대체 6만5천곳에 3년간 3,285억원 지원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사회연대적 삶의 건설을 주요 시정 목표로 추구하는 프랑스 파리市는 지난 3년간 사회연대체의 활성화를 위해 6만 5천여 곳에 총 2억 4,700만 유로(3,285억 원)를 지원했고, 시민이 손쉽게 사회연대체를 만들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 배경
  - 파리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파리시의 주요 시정 목표 중 하나로 사회연대적 삶의 건설을 채택하고, 3년 전부터 지원을 강화
    - 사회연대적 삶(La Vie Associative)은 개인이 아닌 사회연대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연대적 삶의 구심점이 되는 사회연대체(Associations)를 대상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 프랑스의 사회연대체는 한국의 시민단체보다 넓은 개념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든 정치적·비정치적 모임을 의미
      - 지역 주민이 만든 소규모 스포츠 모임도 사회연대체로 인식
  - 사회적 연대경제를 강조하는 파리시는 사회연대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연대가 주요한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경제관을 가짐
- 주요 내용
  - 시내 16개의 '사회연대적 삶을 위한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 시민의 삶이 사회연대적 삶과 융합할 수 있는 교차로 역할을 수행
    - 75명의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 사회연대적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교육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제공
  - '나는 참여한다'(Je m'engage)라는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이 손쉽게 사회연대체를 조직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
  -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 스포츠 관련 사회연대체를 전폭적으로 지원
    - 스포츠 관련 사회연대체는 관련 통합사이트인 'SIMPА'에서 더욱 간소화된 절차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
      - 스포츠센터의 이용예약도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사회연대적 삶을 위한 파리시 노력의 결과를 지난 1월 홈페이지에 공개
  - 6만 5천여 개의 자율적 사회연대체와 6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 존재
  - 사회연대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1만 3천여 명
    - 이 중 8%는 파리시가 직접 고용한 인력
  - 온라인 플랫폼 '나는 참여한다'에서 매달 100여 개의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자율적으로 생성
  - 3년간 총 2억 4,700만 유로(3,285억 원)를 사회연대체의 활동에 지원



[그림 1] 파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회연대체 지원 결과 보고

- 의의와 시사점
  -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시정부가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파리시가 시민의 일상적 삶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시민단체의 개념이 비교적 협소하고 정치적인 우리나라에 비해 프랑스의 사회연대체는 작은 지역의 스포츠 모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 그런 작은 모임까지도 시정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 사회연대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은 파리시민에게 소속감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줌

<https://www.paris.fr/actualites/les-chiffres-cles-de-la-vie-associative-parisienne-2847>

<https://www.paris.fr/actualites/la-vie-associative-c-est-capital-e-decouvrez-le-bilan-des-trois-dernieres-annees-5418>

<https://www.paris.fr/actualites/associations-jusqu-a-quand-deposer-vos-demandes-de-subvention-2906>

<https://www.paris.fr/actualites/simplifier-la-vie-des-associations-sportives-parisiennes-3349>

<https://jemengage.paris.fr/>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 행재정·교육

### 모든 대학생에 등록금 면제…기숙사·식사도 무료제공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행재정·교육

-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가정형편과 이수학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대학생 등록금 면제와 장학금의 혜택을 2018년도부터 모든 대학생에게 확대 적용하고 무료 기숙사·식사 서비스도 모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
- 배경
  -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권리를 추구
    - “경제불황과 예산 재정악화에도 교육을 위한 투자와 헌신은 절대 변함이 없어야 하며, 경제력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토스카나주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 토스카나주 부주지사 모니카 바르니(Monica Barni)
  - 매년 최대한의 예산이 대학 교육에 투자되지만, 2018년에는 대학생의 교육과 생활 전반의 질을 가시적으로 높일 수 있는 투자 증가
    - 2017년 대비 150만 유로(1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
- 주요 내용
  - 기존 이탈리아의 장학금제도
    - 이탈리아의 장학금은 ‘등록금 면제’, ‘연간 1,000유로(131만 원)의 장학금’, ‘기숙사 무료’, ‘학생식당 무료’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모든 주마다 대학교 행정과 장학금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인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DSU: Diritto allo Studio Universitario) 존재
      - 주정부의 행정기관이 모든 대학교의 장학금제도 총괄
    - 가정형편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
      - 1학년 등록 시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무료에서부터 최대 약 200만 원의 등록금이 책정되고, 2학년부터는 이수학점도 함께 반영해 책정
    - 약 50%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제도 혜택 제공

- 2018년부터 차등 적용되던 장학금제도가 모든 대학생에게 확대 적용
  - 2018년도 학기에 등록된 토스카나의 모든 대학생 14,700명에게 총 4,800만 유로(630억 원) 투자
- 대학생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에너지 효율, 녹색 공간, 안전장치에 초점을 둔 캠퍼스 내부 기숙사와 캠퍼스 외부 학생 아파트도 건설할 예정
  - 2018년 91개의 캠퍼스 내부 기숙사 건설 예정
    - 총 4,706개의 침실: 피렌체 1,692개, 피사 1,576개, 시에나 1,438개
  - 2019년 피렌체의 모르가니(Morgagni) 캠퍼스에 120개, 2020년 피사의 카탈도(Cataldo) 캠퍼스에 241개의 학생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
- 2018년부터 학생식당 멘사(Mensa)에서 순차적으로 모든 학생이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이탈리아 대학생은 멘사에서 매일 점심, 저녁 식사를 해결
    - 기존에는 장학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학생만 졸업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했고, 그 외의 학생은 2~5유로(2,600~6,500원) 정도의 최소 금액으로 이용
  - 멘사 부엌과 요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할 예정

<http://www.toscana-notizie.it/-/diritto-allo-studio-universitario-borse-al-cento-per-cento-e-servizi-per-tutti?redirect=http%3A%2F%2F>

김예름 통신원 yereumkim@gmail.com

## 청년니트족 대상 취업연계 프로젝트 진행

영국 버밍엄 시 / 행정정·교육

- 영국 버밍엄시는 인근 도시 솔리힐(Solihull)과 함께 지역 내 만 15~29세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에게 맞춤형 취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과 연계해주는 ‘유스 프로미스 플러스’(YPP: Youth Promise Plus) 프로젝트를 진행
- 배경
  - 조사 결과 버밍엄과 솔리힐 지역의 청년 니트족이 1만 6,610명
  - 시정부는 청년 니트족에게 직업 훈련, 멘토,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취업연계 프로젝트를 기획
- 주요 내용
  - 유스 프로미스 플러스(YPP) 프로젝트의 개요
    - 버밍엄과 솔리힐 지역 청년 니트족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취업과 연계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
    - 유러피안 소셜펀드(European Social Fund)와 버밍엄시 청년 취업계획(Youth Employment Initiative)의 지원으로 진행
    - 다양한 기관, 학계, 단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
  - 청년취업을 돕는 자선단체 프린스 트러스트(Prince's Trust), 버밍엄 의대, 솔리힐 의회 등을 포함한 15개 기관이 참여
  - ‘코그’(Cog)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 멘토링, 컨설팅, 취업기회, 직업 매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7월까지만 지원자를 받는 한시적 프로젝트



[그림 1] Youth Promise Plus 로고 이미지

- 대상자의 조건
  - 버밍엄과 솔리힐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
  - 현재 취업하지 않았고, 직업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
  - 합법적으로 영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Right to Work)이 있어야 함
- 청년 니트족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1대1 멘토와 개인 맞춤형 지원
  - 적합직업 매칭 서비스
  - 이력서 작성법, 지원절차, 자신감 함양 교육
  - 직업체험, 교육, 면접 등에 필요한 여비 제공
- 기업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을 장려
  - 채용 홍보, 채용 활동에 필요한 공간 제공
  - 고용지원을 위한 중개인 파견
  - 후보자 평가와 선별 과정에 도움
-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최대 5천 파운드(760만 원)의 지원금을 12개월까지 제공
  - YPP 프로젝트에서 청년 니트족을 채용하고 4주 연속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1,500파운드(229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
  -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 채용자에게 13주간의 유급고용을 유지한 채 계획된 훈련을 완료하게 하면 추가로 3,500파운드(531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
  - 지원금은 고용주당 최대 20명분까지 신청 가능

[https://www.birmingham.gov.uk/info/20143/young\\_people/1157/birmingham\\_and\\_solihull\\_youth\\_promise\\_plus/4](https://www.birmingham.gov.uk/info/20143/young_people/1157/birmingham_and_solihull_youth_promise_plus/4)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192/youth\\_promise\\_plus\\_on\\_high\\_speed\\_to\\_success](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192/youth_promise_plus_on_high_speed_to_success)

<https://www.cog-brum.co.uk/home>

<http://www.youthpromiseplus.com/>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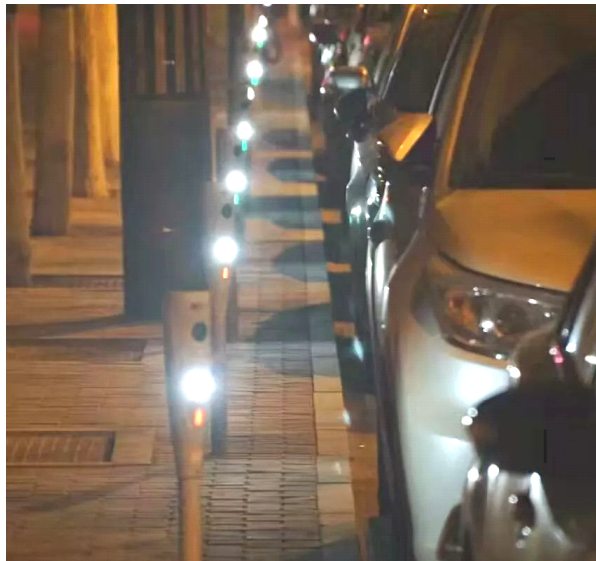
## 도시교통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전자결제로 징수

중국 베이징시 / 도시교통

- 중국 베이징시 교통위원회(北京市交通委员会)는 노상주차장 이용의 혼잡함을 줄이고 요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7개 시범구역 내 4,086개의 노상주차장에 주정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자결제로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2017년 12월 26일부터 도입
- 배경
  - 기존 노상주차장은 이용하기 복잡하고 요금징수 체계가 투명하지 않아 문제
  - 베이징시 교통위원회는 노상주차장 이용 차량의 주정차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
    - 목적은 노상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차량정체 완화, 노상주차장 주차질서 개선, 요금징수제도 규범화
    - 37개 구역 4,086개 노상주차장에서 2017년 12월 26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
- 주요 내용
  - 주정차 모니터링 시스템이 주차정보와 요금계산을 자동으로 수행
    - 주차구역마다 장치를 설치해 차량의 출입을 감지하고 사진을 촬영
    -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 플랫폼에 전송해 주차시간과 비용을 산정
  - 주차요금은 전자결제를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 결제 가능
    - ‘베이징 교통’(北京交通) 앱에서 알리페이나 위챗머니로 요금결제 가능
    - 앱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주차관리인이 소지한 요금 단말기로 결제
    - 알리페이, 위챗머니는 물론 교통카드, 전자요금징수(ETC) 카드, 은행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보행로에 설치된 셀프 요금단말기로도 알리페이, 위챗머니, 교통카드, ETC카드의 4종류로 결제 가능

- 전자결제가 불가능할 때는 주차관리인이 현금을 받고 대리결제
- 원칙적으로 전자결제만 가능하지만, 시범기간에는 현금도 사용 가능
- 베이징 교통 앱을 설치하고 사용자와 차량의 정보를 등록해야 함
  - 전자결제방식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베이징 교통 앱에서 노상 주차기능을 선택한 후 사용자 정보와 이용 차량 정보를 등록
  - 노상주차장 이용 후 앱 내에서 바로 위챗머니나 알리페이로 결제 가능하고, 전자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음
- 시민의 반응
  - 노상주차장 이용이 쉬워졌고, 요금징수 체계가 투명해져 좋다는 의견
  - 현금결제 때 번거로움이 있지만, 주차요금 산정을 둘러싼 시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더 확대되기를 원하는 의견이 다수



[그림 1]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차 모니터링 시스템

[http://www.sohu.com/a/209155702\\_492534](http://www.sohu.com/a/209155702_492534)

<http://www.jiemian.com/article/1842770.html>

<http://news.cctv.com/2017/12/26/ARTIbcR6fRC3ImhxKPIoA8yo171226.shtml>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 정보·기타

### 도시정비사업지구에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 시범적용

독일 뮌헨시 / 정보·기타

- 유럽연합의 공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인 ‘스마터 투게더’(Smarter Together)의 등대 도시로 선정된 독일 뮌헨시는 도시정비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전기 교통수단 인프라, 스마트 교통 시스템, 데이터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조명 등의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예정
- 배경: 스마터 투게더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도시행정 간의 균형점을 찾고, 미래도시의 이슈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모색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2015년에 시작
  - 독일 뮌헨,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리옹의 3개 도시를 ‘등대 도시’(Lighthouse City)로 선정해 각종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규모로 실험
    - ‘추종 도시’(Follower City)로 선정된 스페인 산티아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불가리아 소피아는 등대 도시의 주요 실험 결과를 다른 환경에서 적용
    -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일본 요코하마는 ‘참관 도시’(Observer City)로 프로젝트의 적용 범위를 아시아와 동유럽으로 확산하는 역할
  -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데이터관리, 친환경 재활용, 전기 교통수단 관련 기술 등을 대규모로 실험해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
    - 환경이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실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주요 내용
  - 시정부는 2018년에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편리함을 주는 혁신 기술을 도입할 예정
    - 전기 교통수단 인프라, 새로운 스마트시티 앱, 지능형 조명탑 등
  - 서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지구를 프로젝트의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다양한 스마트도시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예정
    -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의 교통·환경 문제의 해법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



- 시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주거지를 미래기술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한편, 이러한 계획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 장래에 뮌헨 전 주민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 기존의 '스마트시티' 앱에 더 많은 기능을 탑재
  - 각종 도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뿐 아니라 공과금 납부 등의 행정 서비스까지 제공
  - 뮌헨교통조합 앱과 연계해 도시교통 정보 제공
  - 앱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존에 iOS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까지 확대
- 스마트교통 인프라 구축은 올해의 최대 역점 분야
  - 뮌헨도시공사(SWM: Stadtwerke München)의 주도로 전기자전거와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 디지털 교통정보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
  - 2018년 여름까지 전기자전거, 화물용 전기 3륜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위한 4개의 관련 시설을 완공해 전기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할 계획
- 민간 파트너인 '슈타트오토'(Stattauto)와 협력해 전기자동차 임대사업소를 신설할 예정
- 디지털 인포박스를 설치해 상세한 지도를 포함한 각종 디지털 정보를 스마트시티 앱과 연계해 제공
  - 이용자가 약국, 연결도로, 은행과 같은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조명탑을 설치해 교통량과 환경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도시개발과 환경보호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

<http://www.muenchen.de/aktuell/2018-01/muenchen-wird-smart-city-diese-innovationen-erwarten-uns-2018.html>

<http://www.smarter-together.eu>

선지원 통신원, jiwon.sun@gmail.com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뉴욕	이창주
	황 하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용훈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파리	배세진
	양영란
원헨	선지원
베를린	유진경
바르셀로나	진광선
시드니	정용문
도쿄	김민주
	이승민
	이용원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홍콩	강민이
싱가포르	서보경
피렌체	김예름
스톡홀름	허윤희